



# 10 온라인에서의 위험상황 대처법



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!

우리 이렇게 대처해봐요!



**첫 번째,**  
우리의 호기심을 우선 의문형으로 바꿔봐요.

이 사람은 누구지?  
나이는 몇 살이지?  
나에게 왜 친구 요청을 한 걸까?  
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의도가 무엇일까?  
이 사람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?

**두 번째,**  
절대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.  
내 이름 대신 닉네임을 사용해요.

변신!

김콩순 → 콩콩이

개인정보란? 이름, 생일(주민번호), 집 주소, 휴대전화 번호, 학교 이름, 성적, 자격증, 내가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.

(출처) 개인정보보호 포털 (www.privacy.go.kr)

**세 번째,**  
온라인에서만 만났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.

☺ OO님, 우리 한번 실제로 만나볼까요?  
아뇨. 저는 모르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아요. ☺

온라인에서 많이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의도로 나를 만나고자 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.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이나 믿을만한 주변 어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요.

**네 번째,**  
내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봐요.

내가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친구가 되고 싶어지는지 생각해봐요.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,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, 내 취미생활이나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상대가 **'진짜 믿을 만한 사람'** 인지, 믿고 만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**점검**해 보아야 해요.

**점검표**  
 믿을만한 사람인가?   
 타당한 이유가 있나?   
 친절한가?   
 관심사가 같은가?   
 ...

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플랫폼 **미리네**  
miline.or.kr

## 나의 디지털 발자국(digital footprint)을 점검해 볼까요?

온라인 활동을 하며 웹과 SNS 등에 남긴 디지털 기록을 '디지털 발자국'이라고 해요.

**우리가 남긴 발자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**

게임 중에 남긴 채팅 내용, 구매 이력  
구매하기

대박! 흥 흥 ㅋㅋㅋ  
온라인 상에 남긴 말과 표현

내가 본 영상, 음악

검색창에 쓴 검색어

SNS에 탑재된 사진

디지털 발자국은 누군가에게 공유되기도 하고 활용되기도 해요.  
특히 **나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.**

**1) 낯선 사람 계정에 내 사진이 도용되는 사례**

(출처) 누군가 SNS의 내 아이 사진을 훔친다면?! '세어런탕'을 아십니까.  
(한겨레TV, 2020)

**2) 온라인에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려워 더욱 심각한 '디지털 성범죄' 사례**

피해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어디에서 떠돌지 몰라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어요.

(출처) 호모 미디어쿠스: 조용한 살인, 디지털 성범죄 (KBS, 2021)

### 디지털 발자국 관리 팁!

**1** 작성한지 오래된 글이나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가 있으면 온라인에 나의 정보가 쌓이지 않도록 삭제하기

**2** 게시물의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활용하기

**3** 내가 올리는 콘텐츠의 내용 중 나의 개인정보 (연락처, 주소, 학교명 등)가 포함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기